

도서관의 재발견... 신나는 동화책 축제

조용해야 할 도서관이 웅얼거리는 시끌벅적하다. 책장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사이로 한쪽에서는 마술쇼가 펼쳐지는가 하면 알록달록 비누만들기도 한창이다. 책 읽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종이에 필자를 적거나 색칠하기 바쁜 아이들이 가득한 도서관. 서울 은평구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이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8월 20~22일 동안 열렸던 '신사어린이 도서관 축제'에서다.

도서관과 축제.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 최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린이가 도서관을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신사어린이도서관 하루 이용객수는 50명 선. 축제를 하고나서는 하루 100명 가까이 다녀갔다. 행사 아이디어와 내용은 모두 지역주민들에게서 나왔다. '애들아~ 즐거운 책모험 떠나자!' 라는 축제명은 신재연(12) 어린이의 제안이다.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 나설 수 있었던 데는 서울시 마을지원 복지관 사업이 한몫했다. 지역 주민의 욕구를 복지관이 함께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서울시가 주민참여, 지역



8월 20~22일 열린 신사어린이 도서관 축제에서 어린이들이 빅북으로 하는 동화구연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는 '빅북(Big-book) 동화구연'이다. 빅북은 말 그대로 가로세로 30cm 이상 확대 제작한 책. '동화나라 웅달샘'이라는 동화구연 봉사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빅북을 선보였다. 부지포, 색종이, 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만든 책에 아이들의 관심이 일제히 쏠렸다. 책 한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개월. 어르신들의 정성에 아이들도 자연스레 책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키운다.

장수진(10, 여초 초 3) 어린이 역시 축제 프로그램 중 "빅북이 제일 재미있었다"며 "할머니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주셔서 놀라웠다"고 말했다. 도서관 축제 소식에 신사어린이도서관을 처음 찾았다는 장양은 "도서관이 이렇게 재미있는 곳일지 몰랐다"며 "앞으로 자주오고 싶다"고 덧붙였다.

8살 아이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고 싶어 오게 됐다. 이우현(36)씨 역시

"내가 어릴적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도서관"이라며 "책을 놓아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꼽았다.

신사복지관 역시 참여를 저조해 당초 우려와 달리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고 있는데 대해 흐뭇해하는 분위기다. 큰 변수가 없다면 내년에도 도서관 축제를 개최할 생각이다. 1박2일 책 캠프 등 다양한 축제 아이디어도 얻었다.

도서관 한쪽 벽에 자리한 나무그림에 축제 소감을 적은 나뭇잎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되게 새롭다, 즐겁다"에서부터 "꿀잼(꿀은 강조, 잼은 재미의 줄임말, 즉 '매우 재미있다'라는 뜻) "책읽는 게 재미있다"는 반응은 물론 "날아다니는 1인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기상천외한 바람도 있었다. 날아다니는 도서관이 허무맹랑하기만 할까. 조용히 잠자는 책들만 가득했던 도서관이 진화중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예전엔 노숙인, 이제는 바리스타

보현의집, 18일 노숙인 카페 개설

한때는 노숙인이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바리스타다. 노숙인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수송보현의 집(시설장 신용삼)에서 8월 18일 '내 생애 에스프레소' 카페를 개설하고 오픈식을 가졌다. 카페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자리잡았다.

'내 생애 에스프레소'는 노숙인 바리스타 양성 및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카페로 지난해 영등포보현의집에 1호점이 개설됐다. 현재 1호점에는 5명의 노숙인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바리스타 전문 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증까지 갖춘 상태다. 한 달 매출만 해도 1천만원 이상이 될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재노숙을 예방하자는 차원

에서 마련된 이번 사업은 3천만원의 서울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수송보현의집에는 현재 1명의 바리스타가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영등포보현의집 측은 "내 생애 에스프레소는 바리스타라는 직업 전문성을 부여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로 등재해 노숙인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새출발을 앞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줄 사회적 복지 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수송보현의집은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노숙인 자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내 생애 에스프레소' 카페를 개설했다. 사진은 오픈식 당일 축하 내빈들의 모습.

"기후변화 대응, 지금부터가 골든타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9일 기후변화 포럼

최근 독도에 온실가스 관측실이 생기고 브라질 아마존에 330m 높이의 기후 전망대가 생겼다. 기후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다.

이상 기후가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 등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승)은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동우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는 "경제성장을 담보로 하는 복지국가는 대량생산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해 소홀했다"며 "인간의 복지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복지국가 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다양성, 지역성, 상호부조와 연대적 특성이 살아있는 생태적 관점을 가진 복지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 선임담당관은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가 희망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환경교육에만 집중하는 반면 정작 본인은 환경보존에 무감하다"며 "앞으로부터의 시간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사회복지: 생태주의 관점에서의 전환' (한동우 교수, 강남대 사회복지학), '기후변화로 인한 천인재해 증가와 적응 한계' (김지석 선임담당관,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참여형 재난구호 체계 구축 방안' (성기환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배현진 기자

탤런트 김동완, 나눔의 집에 3천만원 전달

MBC '무한도전'도 기부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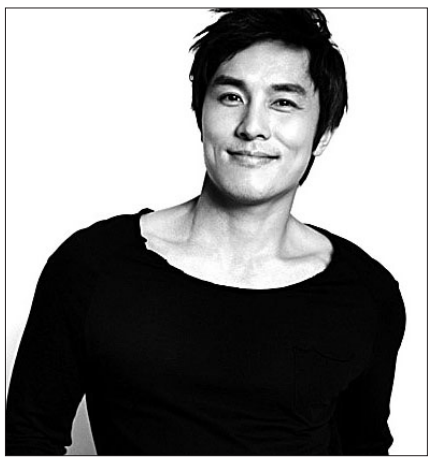
탤런트 김동완(36)씨가 8월 2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사장 월주)은 "8월 20일 탤런트 김동완씨가 '이쁜 역사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며 3천만원을 나눔의 집 후원계좌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금액을 나눔의 집에 전한 바 있다.

한편 MBC 주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팀 역시 8월 18일 2천5백만원을 나눔의 집에 기부했다. 이번 기금은 무한도전 음반수익금 등을 합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 집은 각 후원금을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 추모관 건립과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미니 사찰순례...아빠와 함께 밤길 걷기

조계사-봉은사 코스, 참가비는 기부금으로 활용

별빛과 함께 하는 도심 속 밤길 사찰순례가 열린다. 1만원 남짓한 참가비는 기부금으로 활용된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승)은 오는 10월 8일 '비움과 나눔 108DAY-2014' 아빠와 함께 아름다운 밤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특별한 추억을 통해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조계사와 봉은사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저녁 8시 조계사에서 시작해 약 14km를 걷게 된다. 참가자들은 야광봉선을 들고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남산, 한남대교, 한강시민공원을 거쳐 다음날 새벽 봉은사에 도착하게 된다. 코스 중간 가족

이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장공수님은 "108DAY는 불교적으로 의미 있는 108이라는 숫자에 기부문화를 접목시켜 특별한 함을 더했다"며 "아빠와 함께 걷는 밤길은 점점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에 가족이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9월 28일까지 선착순 500명 모집이다. 참가비는 1인당 10,800원이며 전액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에 사용된다. 참가자에게는 티셔츠와 완주팔찌 등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dreaminus.org)를 참고하면 된다. (02)737-9595

배현진 기자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 합니다.

참 맑은 하늘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청안하십니까?
윤달이 있는 해여서인지 가을바람이 일찍이 다가왔습니다.
일찍 찾아온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인연이 있는 그 곳
청암의 향기에 젖어 좋은 날 되시길 바라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58년(2014년) 9월 13일
(음 8월 20일) 토요일

| 장 소 - 청 암 사(054-439-9511)

| 총동문회의 - 오후 7시

청암사승가대학총동문회 회장 도림 합장

동명세계선센터 선수행학교 2기생 모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녕 어디로 가는가.
염천의 더운 바람이 차라리 가을을 기다리는 양 다가오는 계절에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에서는 선으로 힐링하고 선으로 행복을 노래하며 끝내 영원의 고요에 이르러 가는 선수행학교 2기생을 모집합니다.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이신 수진 스님의 직접 지도와 명쾌한 강의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일 시 2014년 9월 3일 ~ 4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지도·강의 수진 스님 (범어사 율학대학원장, 선센터 선원장)

대 상 선수행에 관심 있는 누구나 (단 스님은 제외)

장 소 동명대학교 세계 선센터 (동명관 4층)

수 학 료 4개월(10만원), 개근상(수진 스님 친필 한 폭)

접 수 ☎ 051) 629-3582 ✉ 051) 629-3589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관해 수진 합장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